마지막 남은 실종자 구조·수습 총력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26층 측면 뚫어 우회로 만들어 접근
구조 작업도 아직 안 끝났는데…
현대산업개발 펜스 브랜드 숨기기
A자형 대신 신축형 사다리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의조치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2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8일 구조당국은 실종된 6명 중 마지막 1인을 구조·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이 구조·수습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자사 이미지 관리를 위해 사고 현장 에서 안전펜스에 그려진 브랜드 이름(I PARK)을 지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현대산업개발은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후 5시 정례브리핑에서 "매몰자가 위치한 26층 측면에서 잔해에 구멍을 뚫는 굴착 방식으로 우회로를 만들어 접근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날(8일) 중으로 매몰자를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작업을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측면을 굴착해 구멍을 뚫는 만큼 진입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작업의 난도가 높다는 게 중수본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아울러 최근 확인 작업을 통해 이날 구조중인 6번째 매몰자 외에 다른 실종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붕괴 사고 당시 실종된 작업자 6명 가운데 5명이 숨진 채 수습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일 아이파크 공사현장을 둘러싼 약 8m 높이 철제펜스에 'I PARK'라고 적힌 붉은색 글씨를 벗꽃무늬 스티커로 가리는 작업을 실시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재건축 현장 철제펜스에 부착돼 있던 'IPARK' 로고를 종이 테이프로 가렸던 바 있다.

더욱이 현대산업개발은 브랜드 숨기기 작업을 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작업자는 사다리 두개가 겹쳐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일명 '신축형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했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작업지침'에 따르면 일자형 사다리에서 작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작업 공간이 확보된 A자형 사다리 등을 이용해야 한다. 당시 작업자는 사다리에 올라 약 3m 높이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현대산업개발에 주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스티커 작업이)간단한 작업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별도의 작업발판 비계를 설치해서 해야 한다"며 "해당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적발됐다면 후속조치를 보고 받아야 하지만 뒤늦게 파악돼 지난 7일 회사 측에 주의조치와 재발 방지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권오산 민주노총 광주전남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안전불감증으로 6명이 희생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수준을 또 한번 보여 준 것 같다"며 "무감각한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9일째인 8일 오후, 소방구조대원들이 26층 잔해 속에 있는 마지막 매몰자를 구조하기 위해 진입로 확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재개발에 사라질뻔한 경양역터 찰방비 재개발지역 공원내에 다시 옮겨 세운다

문화가치 알아 본 주민이 보관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경양역(景陽驛) 터의 '찰방비'가 다시 새로운 위치에 조성된다.

8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경양역터 소공원'이 우산동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개인이 보관중이던 '찰방비'가 우산동 재개발지역 내에 만들어지는 공원내에 새롭게 위치한다.

경양역(우산동 383번지 일대)은 조선시대 광주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역로인 경양도(景陽道·조선시대 41개 역로 가운데 하나)의 중심이 되는 본역으로 찰방(역참 관리하는 관리의 직함, 종6품)이 주재하던 역이었다.

조선시대 광주읍성 북쪽에 자리잡은 경양역은 광주와 그 주변 지방을 연결하던 경양도에 속했던 덕기역·가림역·인물역·창신역·검부역·대부역·오림역·광리역 등 모두 8개의 역을 관할했다.

지난 1968년 매립된 경양방죽의 이름도 경양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산동에는 경양역의 찰방을 기리는 비가 세워졌던 비석거리가 있었지만, 1970년 찰방을 기리는 송덕비가 현재 광주공원으로 옮겨지면서 비석거리는 사라졌다.

이에 광주시 북구는 지난 2003년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옛 경양역터 찰방비 조성사업을 실시했으며, 찰방비를 복원하는 동시에 경양역터의 역사적 개념을 토대로 역터의 상징적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우산동 재개발사업(아파트 2564세대)으로 인해 조성됐던 소공원이 없어지고, 이곳에 있던 2개의 찰방비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이 찰방비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알아보고 인근 교회 뒷뜰로 옮겨 보관중이다.

북구는 우산동 재개발조합과 함께 옛 경양역터 위치에 공원을 재조성해 찰방비를 옮겨 보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병섭 우산동장은 "개인이 수습 보관 중인 찰방비를 잘 관리해 경양역 터의 원 위치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기념행사위, 42주년 행사 사업 시동

대표 슬로건 13일까지 전국 공모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42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5·18행사위)는 8일 제 42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의 대표 슬로건을 13일까지 전국 공모한다고 밝혔다. 슬로건 선정 기준으로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완전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담은 표현 ▲광주의 오월이 변화된 세상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두의 오월을 표현 ▲오월의 대동세상이 휴전선 철책을 넘어 오월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표현 등으로 한글 문구 20자 이내의 간결한 구호 형태여야 한다.

접수는 5·18행사위 이메일로 하면 된다. 선정작(1명)에는 50만원, 우수작(5명)에 각각 10만원씩을 시상한다.

5·18행사위는 또 오는 3월 6일까지 42주년 5·18기념행사를 알릴 온라인 청년활동가 오월홍보단 '오월이들'을 모집도 진행한다. 오월홍보단 '오월이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과 SNS 매체를 통해 광주를 비롯 전국에서 진행될 5·18기념행사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지원자격은 5·18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청년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 제42주년 기념행사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SNS매체 활용에 능하고 글씨기와 사진촬영이 가능한 개인블로그,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개인 등이다. 각각의 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은 5·18행사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자는 3월 15일 이후 5·18행사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정 아이파크 같은 중대재해 다시는 없어야"
광주전남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 8일 건설노조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가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올해 11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발생된 전형적인 빨리 빨리 공사가 부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빨리 빨리를 앞세운 공사 진행으로 추락, 끼임, 질식, 폭발, 화재, 감전으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는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면서 "건설현장의 사고는 모두가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지난 2020년 9월 발의됐음에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성주 건설노조 광주지역본부 사무국장은 "건설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건설산업연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모든 투쟁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시민 폐렴 사망률 전국 최고 수준

광주시민의 암 발생율은 낮지만 폐렴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발표한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민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84명으로 8개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낮았지만 폐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의 영향으로 시민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년도 대비 3.4%p 감소했고, 걷기실천율도 전년 대비 9.4%p 감소한 34.3%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더불어 광주시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84.1세로 나타났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타지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민의 기대수명은 84.1세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기대수명의 격차가 8.6세로 분석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대 수명이 낮아 감소 원인을 파악한 뒤 공공의료원 설립 등 광주의료안전망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민의 흡연율은 18.5%로 평균 수준이었으나 흡연율 감소폭은 8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아 적극적인 금연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권순석 단장은 "폐렴 사망률처럼 양호하지 않은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72711	1	서구 상무자유로105, 103동 17층 1707호 [치평동,중흥아파트] 106.83㎡[공유자구인모1/2지분전부]	아파트	260,000,000 260,000,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7663	1	북구 중흥동 330-28 136.8㎡ 북구 자미로66번길 51-3 1층74.04㎡ 2층43.30㎡ 부속건물 단층 변소및창고3.96㎡ 제시외 단층창고등36.86㎡	대 단독주택	210,900,710 210,900,71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건축물대장상부속건물인변소및창고멸실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5728	1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362-1 1101㎡ 동소 363-2 608㎡ 동소 363-3 1243㎡ 동소 367 639㎡[물건번호1:최저매각가격은수목[복숭아나무등]제외한토지만의평가액]	답 답 답 답	165,359,000 165,359,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전'.토지위에매각대상아닌임차인박형운이식재한복숭아나무있음
2021타경7281	1	서구 금호동 608 646㎡ 동소 608-1 754㎡ 동소 608-2 252㎡ 동소 608-3 209㎡ 동소 608-4 794㎡[물건번호1:목록2,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지역안에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예정지로지정[결정]된토지로농지취득자격증명불요]	답 답 답 답 답	2,663,992,000 2,663,992,000	일괄매각.목록1,3,5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7581	1	화순군 동면 대포리 906 2641㎡[연고미상분묘12기소재,최저매각가격은분묘소재로인해제한받는가격농지취득자격증명요,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2021.11.18자사실조회회신서참조]]	전	22,000,000 22,000,000	맹지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1타경7182	1	나주시 문화로226, 4층 401호 [빛가람동, 키움해피라움2차] 112.12㎡	근린시설	257,000,000 257,000,000	공실[천정및바닥공사내부인테리어필요시됨]
	2	나주시 문화로226, 4층 402호 [빛가람동, 키움해피라움2차] 149.94㎡	근린시설	328,000,000 328,000,000	물건번호1비고와동일
	3	나주시 문화로226, 4층 403호 [빛가람동, 키움해피라움2차] 160.12㎡	근린시설	385,000,000 385,000,000	물건번호1비고와동일
	4	나주시 문화로226, 4층 404호 [빛가람동, 키움해피라움2차] 100.80㎡	근린시설	220,000,000 220,000,000	물건번호1비고와동일
	5	나주시 문화로226, 4층 405호 [빛가람동, 키움해피라움2차] 93.155㎡	근린시설	214,000,000 214,000,000	물건번호1비고와동일
	6	나주시 문화로226, 4층 406호 [빛가람동, 키움해피라움2차] 115.92㎡	근린시설	228,000,000 228,000,000	물건번호1비고와동일
	7	나주시 문화로226, 4층 407호 [빛가람동, 키움해피라움2차] 107.26㎡	근린시설	223,000,000 223,000,000	물건번호1비고와동일
[자동차,중기]					
2021타경73929	1	사용본거지:목포시 유동로16번길 9 203호[유동,유동빌리지] 등록번호:05다6876 차명:SM6 연식:2019[감정평가서참조]	자동차	19,000,000 19,000,000	보관: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062-953-8424]
[기타]					
2021타경74618	1	서구 풍암동 1021 1614.7㎡['풍암동해돋타워'신축공사예정부지임]	잡종지	2,567,373,000 2,567,373,000	
2021타경75345	1	나주시 빛가람동 516-3 주차장 895.6㎡[코오롱하늘채모델하우스주차장으로이용후철거중임]	주차장	1,791,200,000 1,791,2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2. 2. 23.[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3. 2.[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2. 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공정배